評批文을 통해 본 〈折花奇談〉*

- 평비 양상과 의도를 중심으로 -

장 예 준**

1. 머리말
2. 평비문에서 다룬 문제들
3. 평비 작업의 의도와 의미
4. 평비 소설로서 〈절화기담〉의 위상

1. 머리말

〈折花奇談〉은 19세기에 창작된, 총 3회로 이루어진 장회체 소설로, 李生과 舜梅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만남을 이루고 헤어지는 과정을 다뤘다. 여기에는 南華散人과 石泉主人이 쓴 序文 두 편, 각 회마다 남화산인이 쓴 評批文이 붙어 있어 評批 형식을 띤 소설로 간주된다.

〈절화기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작품의 평비문에 대해서는 소설의 구성 문제를 다루면서 伏線과 照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루어졌을 뿐,[1]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작품이 19세기 한양의 종로를

* 엉성하기 짝이 없는 논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논문이 좀 더 짜임새를 갖추고 논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 것은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정확한 지적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심사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논문을 보완하였지만, 여전히 미진한 데가 많을 것이다. 논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 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연구교수.

1) 정우봉, 1996「조선후기 소설론에 있어 구성의 문제」『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배경으로 하여 당시 한양의 인정세태를 잘 보여준다는 점 때문에 주로 작품에서 그려진 사랑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근대적 의미가 무엇인지,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던 유흥 양상은 어떠한지 등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최근 傳奇소설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의도 있다.[2)]

〈절화기담〉 평비문이 연구자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절화기담〉 평비문에는 明淸代 평비 소설의 평비문에 난무하는 현학적인 서술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廣寒樓記〉처럼 언뜻 보기에 작품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일화들을 늘어놓아 독자들의 눈을 어지럽히지도 않는다.[3)] 오로지 작품 자체에 대해서만 서술할 뿐이다. 그럼에도 〈절화기담〉 평비문이 독자의 머리를 어질어질하게 하는 데에는 평비소설의 평비문이 기본적으로 갖는 속성들도 한몫 한다. 즉 평비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사건의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고 이리저리 뒤섞어 놓았다는 점, 서술하는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전혀 환기해 주지 않는다는 점, 몇 가지 사건에 대한 설명들을 한꺼번에 해 나가면서 정작 이 사건들이 왜 연관이 있는지는 제대로 드러내어 설명해 주지 않는 점 등이다. 이는 평비문이 작품의 내용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써내려 간 글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래서 작품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불친절한 글이 될 수 있다. 〈절화기담〉 평비문도 마찬가지다. 다만 〈西廂記〉, 〈水滸傳〉은 현학적인 내용과 서술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가려놓았고, 〈廣寒樓記〉에서는 다른 일화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2) 〈절화기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 중 일반 논문만 연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양완, 1992「〈折花奇談〉에 대하여」『한국학보』 18-3, 일지사; 김경미, 1995「〈折花奇談〉 연구」『한국고전연구』 1; 윤채근, 2002「〈折花奇談〉에 나타나는 환유적 사랑」『한국고전연구』 8; 조혜란, 2003「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고찰: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을 중심으로」『국어국문학』 135; 김경미, 2009「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19세기 소설을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35; 김문희, 2009「〈折花奇談〉과 〈布衣交集〉에 재현된 한양과 사랑의 의미」『서강인문논총』 26; 이지하, 2009「고전소설에 나타난 19세기 서울의 향락상과 그 의미」『서울학연구』 3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신상필, 2011「傳奇小說의 일상성과 내면응시를 통한 조선후기적 변주」『대동한문학』 35.

3) 정길수, 2011「〈廣寒樓記〉 評批 분석(2): 回評과 夾批」『동방한문학』 48, 157-187면.

놓았을 뿐이다.[4)]

평비문은 평비자가 해당 작품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종의 독서 기록이다. 그래서 평비문에서는 평비자가 평비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비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품의 어떤 측면을 뚜렷하게 드러내려고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절화기담〉 평비문은 평비문 서술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데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평비자의 생각들을 인상 비평하듯 단편적인 언술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처음 평비문을 읽으면 암호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작품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평비문을 찬찬히 읽어 보면, 작품 속 사건, 등장인물을 평비자 나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서 평비문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 소설론 중 구성 문제를 다루는 선행 연구에서 이 작품 평비문 일부분을 활용하여 '眞假' 문제를 통해 소설의 복선과 조응 문제를 다루었음이 지적되었다.[5)] 크게 보면 본 논문의 기본적인 입각점도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만 뭉뚱그려 보면 본 논의는 연구사적으로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 싶다. 이 작품의 평비문을 두고 이미 "'眞假' 문제를 통해 소설의 복선과 조응 문제를 다루었"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이 작품의 평비문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결론의 타당함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 이 관점에서 이 작품의 평비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일까? 사실 선행 연구에서 내려진 저 결론을 걷어놓고 보면, 이 작품의 평비문에서 평비자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였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하다못해 이 작품 평비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眞假'와 '虛實'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평비문 전체에 걸쳐 과연 일관된 뜻으로 활용되었는지조차 살펴본 적이 없지 않은가?

---

4) 〈광한루기〉 평비문의 구성과 논지 제시 방식에 대해서는 장예준, 2013 「〈廣寒樓記〉 評批文의 논지 제시 방식: 譬喩와 織造의 修辭」『어문논집』 67을 참조.

5) 정우봉, 1996 앞의 논문.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절화기담〉 평비문을 대상으로 하여 평비문에 등장하는 '眞假', '虛實'의 용례를 살핀 뒤, 작품 평비자인 南華散人이 이 작품을 어떤 관점을 갖고 읽어 나갔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하였고, 어떤 측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는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절화기담〉 평비문은 시종일관 사건과 인물의 세부적인 형상화와 의미 측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양상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비자가 이 작품에 대해 평비 작업을 한 의도는 무엇인지, 각 회 평비문에서 사건의 흐름과 등장인물의 관계, 언행을 '眞假', '虛實'의 관점에서 분석한 의도가 무엇인지, 평비소설로서 〈절화기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이 작품의 평비문의 면모를 보임으로써 평비문이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서사 이론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해당 부분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본 논문이 현대 서사 이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의 평비자가 이러저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평비문을 썼다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니와, 현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평비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비록 너무나도 단순하고 진부한 사항들일지라도 그 '단순하고 진부한 면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이 작품 평비문이 지닌 특성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데 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6)]

2. 평비문에서 다룬 문제들

선행 연구에서 남화산인이 眞假, 虛實, 有無의 상호조응을 통한 작품 구성의

6) 앞으로 〈절화기담〉 번역은 김경미 · 조혜란 역주, 2003『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여이연, 31-126면에서 인용하되, 명백한 오류라 생각되는 부분은 수정하여 인용한다. 그리고 작품 원문은 일본 동양문고본을 대본으로 한 장효현 · 윤재민 · 최용철 · 지연숙 · 이기대, 2007『校勘本 韓國漢文小說: 愛情世態小說』(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보고사, 652-681면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인용한다. 그리고 원문 인용 면수는 동양문고본의 면수로 표기하며, 작품명은 생략한다.

치밀함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면서 예술론에서 쓰이는 眞假, 虛實 개념을 설명했다.[7]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와는 다른 의미로 쓰였으며,[8] 애초부터 소설의 구성이나 기법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9]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평비문의 문맥 안에서 이 단어들이 쓰인 부분에서 갖고 있는 의미에 근거하여 평비문에서 쓰인 '眞假', '虛實'의 용례를 대략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折花奇談〉 평비문에서 쓰인 '眞假', '虛實'의 용례

眞 / 假		虛 / 實
1. 진짜와 가짜	2. 진실과 거짓	1. 사건에 대한 인식 양태로서의 진실과 거짓 2. 유의미한 행위 / 무의미한 행위
1) 실제와 허상, 환상 2) 실제 결과로 나타난 일 3) 진짜 대상과 가짜 대상	1) 진실된 마음과 거짓된 마음 2) 실제 행동과 진짜 속마음	

먼저 '眞假'는 크게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을 각각 대비하는 데 활용되었다. 먼저 '진짜와 가짜'의 경우에는 세 가지 용례로 쓰였다. 첫째, 실제와 허상/환상,[10] 즉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과 아닌 것, 실제인 듯하나 실제가 아닌 것을 대비하거나, 둘째, 실제 결과로 나타난 일을 드러내거나, 셋째, 진짜 대상과 가짜 대상을 구분하는 데 활용되었다. 첫 번째 용례는 사건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그리고 뒤의 두 용례는 해당 사건 자체

7) 그에 따르면, 본래 眞假는 예술상의 진실과 허구의 관계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眞은 생활상의 진실 혹은 예술적 진실을 가리키고, 假는 생활상의 진실과 상대되는, 예술적 전형을 통한 假 혹은 예술적 진실과 상대되는 허구를 가리킨다. 또한 虛實 역시 고전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명료한 서술과 뚜렷하지 않는 서술, 사실과 허구, 직접적·구체적 묘사와 간접적·암시적 묘사 등의 관계를 나타낸다(정우봉, 1996 앞의 논문, 139-140면).

8) 이 점 역시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다(정우봉, 1996 앞의 논문).

9) 물론 평비자가 '眞'과 '假', '虛'와 '實'이 서로 交錯하고 照應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었다고 본 만큼, 궁극적으로는 평비자 역시 소설 속에서 사건 구성의 치밀함과 기법의 오묘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현대 연구자들이 이것들을 소설 구성이나 기법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다.

10) 실제와 환상의 대비는 '眞'과 '夢'을 상대어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夢'은 '假'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므로 '眞假'의 대비로 간주할 수 있다.

를 설명하는 데에만 활용된다. 여기서는 뒤의 두 용례만 살펴보기로 하자.

제1회 평비문에 "노파가 한 번 기약한 것은 진짜 기약이요, 이생이 한 번 놓친 것은 진짜 놓친 것이다"는[11] 말이 나온다. 앞 구절은 노파가 이생에게 순매와의 만남을 주선해 보겠노라 한 기약이 진실로 한 기약이며, 이를 실천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뒷 구절은 이생이 출타했다 오는 바람에 순매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실제로 놓쳐버렸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제1회 평비문은 "이생이 보았다고 한 것은 진짜로 본 것이다. 진짜로 본 것 가운데에도 또한 보기 어렵고 잊기 어려운 정이 많도다."로[12] 끝맺는다. 이생이 순매와 처음 만난 날, 막 인연을 맺으려던 찰나 간난의 등장으로 어그러져 버린 데 대한 무한한 아쉬움의 정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진짜로' 본 것은 이생이 꿈에서 순매를 만난 것과 대비를 시킨 것으로, 허상이 아니라 실제 대상을 보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제3회 평비문에 "난간에 기대어 바라볼 때 처음에는 거짓인 줄 알았는데 뒤에 진짜가 나타났다."는[13] 말이 나온다. 이는 순매를 난간에서 기다리던 이생에게 먼저 이웃집 여자가 지나간 후 마침내 순매가 나타난 것을 두고 한 말로, 이생이 기다리던 진짜 대상이 아닌 것과 진짜 대상으로 대비를 시킨 것이다.

다음 '진실과 거짓'의 경우, 등장인물의 언행, 계책, 속마음 등이 진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쓰였다. 그래서 이 용례는 항상 사건의 흐름,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활용되었는데, 다음 두 가지 대비를 드러냈다. 첫째, 등장인물의 진실된 마음[眞心]과 거짓된 마음[假心]의 대비. 이는 등장인물의 행위와 속마음이 서로 다르며, 그 행위와 속마음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낼 때 활용되었다. 둘째, 등장인물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실제 속마음이 다르다는 점을 대비하여 드러낼 때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등장인물이 실제 속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였다.

제1회 평비문에서 순매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이생에게 노파가 세 가지 어려움을 드는 부분을 두고, 평비자는 "노파가 어렵다고 한 어려움은 진짜 어려

11) 제1회 평비문, 9면 "嫗之一期爲眞期, 生之一失爲眞失."
12) 제1회 평비문, 10면 "生之見乎[云見]者, 乃眞見, 而眞見之中, 亦多難見難忘之情也哉!"
13) 제3회 평비문, 51면 "倚欄相望, 有先假後眞."

움이 아니라 가짜 어려움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14] 말한다. 노파의 말은 이생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마련한 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평비자는 노파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 '가짜 어려움'이라 했다. 또 제3회 평비문과 제1회 평비문에서 이생과 간난의 관계, 이 두 사람의 속마음에 대한 노파의 인지 문제를 '眞假', '虛實'이라는 말을 통해 이야기하였는데, 모두 그들의 진실된 마음,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15]

제3회 평비문에 "이생은 스스로 끊어 놓고는, 끊고 난 뒤에도 오히려 연연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결단을 내려 끊고 난 후에도 오히려 마음 속에서 잊지 못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평비자가 등장인물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이와는 다른 속마음을 대비시켜 드러낸 것이다. 앞 구절은 순매와의 약속이 거듭 어긋나자 마침내 이생은 더 이상 순매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노라며 화를 내지만, 며칠 뒤 노파가 와서 순매와 만남을 주선하자 매우 기뻐하며 만남을 고대하는 장면을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이생은 순매와 마침내 인연을 맺었지만, 그 후 순매에 대한 간난의 통제가 심해지자 더 이상 만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마침내 관계를 끊는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잊지 못하여 편지에 시를 적어 보내 그립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한다. 뒷 구절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 순매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두고 이생이 보이는 행위와 실제 속마음이 서로 다름을 대비하여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虛實'은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었다. 첫째 용례는 노파의 계책에 따라 만남을 가진 이생과 간난의 속내와 행위의 진실됨과 거짓됨, 그리고 이에 대한 노파의 인지 문제를 다룰 때 활용되었다. 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등장인물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는가, 곧 사건에 대한 인식 양태로서 진실과 거짓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일의 결과 측면에서 봤을 때, 계책이나 행위의 유의미성을 드러낼 때 활용되었다. 이는 이생과 순매 사이의 관계를 둘러싸고 그들을 중개하는 노파의 계책과 둘의 관계를 방해하는 간난의 행위가 모두 헛된 처사임을 보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16] 이 '虛實'은 이생과 간

14) 제1회 평비문, 10면 "嫗之'難乎'云難者, 非眞難, 而乃假難, 難爲言也."

15) 이는 뒤에 '眞假'의 조응 문제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난, 노파를 둘러싼 계책과 속마음 등을 드러낼 때에 한해서 활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평비자는 등장인물 상호간에 서로의 마음을 숨기거나 잘못 앎으로써 그들의 계획, 행위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음을 드러냈다.

이 작품의 평비문에서 가장 많이,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眞假', '虛實' 용례는 바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 특히 등장인물의 진실된 마음[眞心]과 거짓된 마음[假心]을 대비하는 것이다. 작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등장인물의 언행, 계책, 속마음 등이 진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경우에 쓰인 셈인데, 그래서 이 용례는 항상 사건의 흐름,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활용되었다. 그리고 빈도는 적지만 중요하게 활용된 용례로 '진짜와 가짜'의 구분 중 실제와 허상/환상, 즉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과 아닌 것, 실제인 듯하나 실제가 아닌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 용례를 통해 평비자는 사건을 겪는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언행, 계책, 속마음 등의 진실성 여부를 짚어내기도 했다. 지금부터 이 두 용례가 활용된 평비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비자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했는지 살피기로 한다.

1) '眞假', '虛實'의 交錯과 照應: 인물의 언행·속마음, 상황에 담긴 진실과 거짓의 엇갈림

이 작품의 평비자는 작품 속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데 나름 일관된 방식을 활용한다. 먼저 평비자는 논의 대상을 삼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는다. 대신 그 사건을 둘러싼 등장인물의 언행과 속마음, 상황 등을 '眞假', '虛實'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대비해 놓는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교착과 조응을 이루며 어떤 사건이 결과로서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더 나아가 사건의 흐름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었음을 드러낸다.

평비자는 이에 대한 관심을 "虛實과 眞假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가 이야기가

16) 제3회 평비문, 51-52면 "以嫗則有媒鸞之計, 以鸞則有陷嫗之責, 嫗之媒, 固虛也, 鸞之責, 亦虛也, 則前之虛後之實, 遙遙相綴. 鸞之眞心相待, 生之假心相待, 以眞待假, 以假言眞, 有眞眞假假, 相錯之理, 甚矣! 作者之巧也!"

한참 진행되면서 메워진다."거나 "앞뒤와 중간과 끝에서 사이사이에서 조응이 되고 멀리서도 연결이 된다."거나 "진실과 거짓이 서로 섞여 드는 이치가 있다."는 말 등으로 표현을 해 놓았다.[17] 이는 '眞假', '虛實'이 교착하고 조응을 이룬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조응은 독자가 사건이 한참 진행된 후에 사건들을 되돌아 봤을 때, '眞假', '虛實'이 서로 인과관계에 따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연관성을 의미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교착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나 사건이 복잡하게 서로 뒤얽힌 양상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활용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眞假', '虛實'이 서로 얽혀있는 양상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평비문을 통해 볼 때, 평비자는 일차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연루된 등장인물과 상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조응을 이루는 양상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평비문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처럼, 한 사건 내에서 '眞假', '虛實'이 교착되고 조응을 이루는 양상 자체에만 관심을 보인 경우도 간혹 있다.

> 假夢이 한 번이요, 眞夢이 한 번이다. 진심으로 그리워하자 가몽에서 만나고, 假心을 스스로 끊으니 진몽이 갑자기 이루어졌다.[18] 〈제1회 평비문〉

'假夢'은 이생이 꿈속에서 순매를 만난 것을 가리키며, '眞夢'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생이 순매와 하룻밤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가리킨다. '假心'은 노파의 계책에 따라 이생이 간난을 거짓으로 잘 대해 준 것을 가리킨다.[19] 여기서 '假夢'의 '假'는 이생이 순매를 꿈속에서 만났으므로 '허상'을 만났다는 의미로 쓴 것이며, '眞夢'의 '眞'은 반대로 이생이 순매를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만났다는 의

17) 제1회 평비문, 9면 "虛實眞假, 在在伏線, 遙遙補綴."; 제1회 평비문, 10면 "前後中終, 間間相對, 遙遙相連."; 제3회 평비문, 53면 "有眞眞假假, 相錯之理."

18) 제1회 평비문, 9면 "假夢者爲一, 眞夢者爲一. 眞心相思, 假夢相接, 假心自絶, 眞夢忽圓."

19) 정우봉, 1996 앞의 논문, 140면. 아울러 "'假心'을 스스로 끊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미로 쓴 것이다.

평비자는 '假夢'과 '眞夢'을 대비시킴으로써 이생이 순매를 꿈속에서 만난 일과 실제로 만난 일이 멀리서 서로 대응됨을 드러냈다. 그리고 평비자는 순매를 진심으로 그리워한 이생의 '眞心'과 꿈속에서 순매를 만난 '假夢'을, 이생이 간난을 거짓으로 잘 대해 주었던 '假心'과 순매를 실제로 만난 '眞夢'을 대비시켜 놓았다. 이를 통해 '眞'과 '假'가 속마음과 일의 결과를 통해 교착됨을 보여주는 한편, 진실된 마음을 가짐과 거짓된 마음을 끊음이 각각 결과로 나타난, 꿈속의 만남과 실제 만남이 서로 조응을 이루고 있음도 드러내었다.

> 꿈속에서는 진짜 같았으나 진짜는 아니었고, 만났을 때는 꿈 같았으나 꿈은 아니었다. 꿈이 꼭 진짜 같았으니 깨고 나서 "긴 그리움 깊은 한숨"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었고, 진짜로 만나고 나서는 "우윳빛 젖가슴이 출렁거림, 옥 같은 피부가 매끄럽다."와 같은 구절이 앞뒤와 중간과 끝에서 사이사이에서 조응이 되고 멀리서도 연결이 된다.[20] 〈제1회 평비문〉

위 인용문의 첫 문장은 꿈속에서의 만남과 실제 만남에서 모두 '실제'와 '환상'이 대비되며 교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이생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순매가 나타나자 자신의 마음을 털어 놓고는 수작을 건다. 아무 반응이 없는 순매를 보고 놀라 깨고서야 비로소 꿈이었음을 알았다. 꿈속이라는 '환상[假]'과 꿈에서 나타난 대상을 '실제[眞]'라 생각한 일이 대비를 이루면서 교착되는 것이다. 그리고 꿈속에서 순매를 만난 이후 겨울이 깊어 가도록 순매를 만나지 못해 몹시 실망한 상태였던 이생은, 그믐날 뜻하지 않게 노파가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 순매가 와 있다는 말에 한걸음에 달려가 순매와 만난다. 전혀

---

20) 제1회 평비문, 10면 "一夢而似眞非眞, 眞見而似夢非夢. 夢果眞而覺來有長相思長歎息之文, 眞見而有酥胸蕩樣[瀁]·玉膚潤滑之句, 前後中終, 間間相對, 遙遙相連." 한편 정우봉은 "한 번 꿈을 꾸니 진짜인 듯하나 진짜가 아니다"는 꿈속에서 순매를 만난 것을, "진짜 만나 보니 꿈 같지만 꿈은 아니다"는 노파의 도움을 받아 온갖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인연을 맺은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정우봉, 1996 앞의 논문, 131-132면). 이 논의에서 후자는 제3회에 이루어진 이생과 순매의 마지막 만남을 염두에 둔 것 같다. 하지만 "우윳빛 젖가슴이 출렁거림, 옥 같은 피부가 매끄럽다."는 구절은 제1회에 이생과 순매가 처음으로 만나 하룻밤 인연을 맺으려는 찰나에 무산되는 장면에 나온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매를 만난 것이기에 순매를 만난 것 자체가 '환상[假]'이라 느낄 법하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현실에서 순매를 만난 것이 분명[眞]하기에 이생이 실제로 순매를 만난 일에서도 '眞假'가 대비를 이루면서 교착되는 것이다.

한편 평비자는 한 사건 내에서 '眞假', '虛實'이 교착되고 조응을 이루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양상 자체를 드러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음 두 가지를 드러내려 한 것 같다.

첫째, 등장인물의 마음, 말, 행위의 '실상'을 드러내었다. 그는 등장인물의 마음, 말, 행위 등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 등장인물의 행위가 계책상 그러하였는지 여부,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실제 속마음의 차이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이 실제 속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을 한다든지, 등장인물들의 속마음, 말, 행위를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든지 함으로써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어 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평비자 스스로 평비문상에서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등장인물의 원래 의도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도 하고 귀결되기도 함을 암시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등장인물의 마음, 말, 행위 등에 대한 그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 두 번째 문제는 '眞假', '虛實'의 대비 없이 사건의 흐름이 변하는 계기를 짚어내는 문맥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이생은 무심히 수작을 했으나, 간난이는 마음을 두고 교태를 머금었으니 "한 번의 진짜, 한 번의 가짜, 한 번 나아가고 물러간다."는 문장이 있게 된 것이다. 노파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虛를 實로 알았으니, 虛實과 眞假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가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면서 메워진다.[21] 〈제1회 평비문〉

> 이생이 간난이에게 마음이 없었으나 간난이는 이생에게 마음이 있고, 노파는 뜻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이는 이른바 "낙화는 뜻을 가지고 물을 따라 흘러가건만, 흐르는 물은 낙화에게 무정하기만 하다."는 것과 같다.[22] 〈제2회 평비문〉

---

21) 제1회 평비문, 8면 "李生之無心酬酢, 鸞婢之有意含嬌, 有一眞一假一進一退之文, 而老媼則認假爲眞, 以虛爲實, 虛實眞假, 在在伏線, 遙遙補綴."

> 노파는 간난이를 중매하려 계획했고, 간난이는 노파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책을 했으니, 노파의 중매는 진실로 헛된 것이요, 간난이의 힐책 또한 헛된 것이다. 그러니 앞의 거짓과 뒤의 진실이 멀리서 서로 이어진다. 간난이는 진심으로 이생을 대했으나 이생은 거짓된 마음으로 대하였다. 진실로써 거짓을 대하고, 거짓으로써 진실인 듯 이야기하니, 진실과 거짓이 서로 섞여 드는 이치가 있다. 대단하구나, 작가의 기교여![23] 〈제3회 평비문〉

작품에서 이생과 순매 간 관계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이생과 간난의 관계이다. 노파의 계책에 따라 끼어든 간난으로 인해 사건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비자도 그 관계를 둘러싼 등장인물의 언행과 속마음에 주목하여 '眞假', '虛實'이 서로 대비되는 양상, 교착되고 조응되는 양상을 드러내 보였다. 다만 그 서술들이 평비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한데 모아서 살펴야만 그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처음에 이생은 간난에게 술을 먹이며 잘 구슬리면 틀림없이 순매와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라는 노파의 말에 대해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간난이 이생에게 마음을 두게 된 것이다. 이는 노파가 거짓으로 간난에게 이생이 한 번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이생은 간난과 처음 만나서 술잔을 주고받는데, 서술자의 표현처럼,[24] 이는 두 사람 사이를 새로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생은 애초부터 간난에게 전혀 마음이 없었다. 어디까지나 간난이 자신의 편이 되어 자신을 도와주리라는 기대 하에 만난 것이었다. 이생이 술에 취해 간난에게 한 "속담에 한 잔 술에 일이 이루어지고, 두 잔 술에 합환을 이룬다고 했으니, 너는 이 술을 마시고 나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내어다오."라는 말은[25]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간난은 "저는 온몸으로 받들고자 하는데,

---

22) 제2회 평비문, 27면 "以生而無心乎鸞, 以鸞而有意於生. 以嫗則有意無意, 有心無心, 正所謂'落花有意隨流水, 流水無情戀落花'者也."

23) 제3회 평비문, 52-53면 "以嫗則有媒鸞之計, 以鸞則有陷嫗之責, 嫗之媒, 固虛也, 鸞之責, 亦虛也, 則前之虛・後之實, 遙遙相綴. 鸞之眞心相待, 生之假心相待, 以眞待假, 以假言眞, 有眞眞假假, 相錯之理, 甚矣! 作者之巧也!"

24) 제2회, 43면 "三盃花作合, 兩盞色媒人."

25) 제2회, 43면 "語曰, '一盃人事, 二盃合歡.' 爾其飮此, 爲我出一臂之力."

작은 힘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라고 하며[26] 이생에게 마음이 있음을 드러냈다. 다음 날 노파가 농담으로 "어제 간난의 마음은 온통 상공께 있던데, 그쪽을 먼저 도모해 보시지요."라고 말한 것은[27] 이를 뒷받침한다. 이생은 이런 상황이 몹시 꺼림칙했지만, 계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노파의 말에 이생은 간난을 잘 대해주는 척한다. 이후 간난이 이생을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표하자 이생은 이를 몹시 난감해한다.[28]

이러한 상황을 두고 평비자는 평비문에서 "이생은 무심히 수작을 했으나, 간난이는 마음을 두고 교태를 머금었"으며, "이생이 간난이에게 마음이 없었으나 간난이는 이생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간난이는 진심으로 이생을 대했으나 이생은 거짓된 마음으로 대하였"기에 평비자는 "진실로써 거짓을 대하고, 거짓으로써 진실인 듯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서로 섞여 드는 이치가 있다."는 말을 통해 평비자는 이생의 거짓된 마음과 간난의 진심이 엇갈리고, 이생의 거짓된 호의를 간난이 진실로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 엇갈리는 상황, 이로 인해 사건이 묘하게 흘러가게 됨을 잘 짚어내었다.

그렇다면, 애초 이생에게 간난을 이용하게 했던 노파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평비자는 제1회 평비문에서 "노파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虛를 實로 알았"다고 하면서 "虛實과 眞假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가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면서 메워진다."고 하였다. 또 제2회 평비문에서는 노파가 간난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노파는 뜻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라고 서술했고, 제3회 평비문에서는 "노파는 간난이를 중매하려 계획했고, 간난이는 노파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책을 했"다고 서술했다.

제1회 평비문의 "노파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虛를 實로 알았으니"에서 '眞假'와 '虛實'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언뜻 보면, '眞假'는 이생과 간난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품었던 마음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노파가 가짜를 진

26) 제2회, 43면 "妾有全身之奉, 一臂之說, 是何言耶?"

27) 제2회, 43-44면 "昨日, 鸞婢一心, 只在相公. 相公其先圖之."

28) 제2회, 44면 "生假意承順. 自是之後, 鸞女無日不會于媼家, 或奉邀殷勤, 或路迎諂笑, 好事場中成一魔障, 生厭悶不已."

짜로 알고 虛를 實로 알았다는 말과 虛實과 眞假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가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면서 메워진다는 말을 설명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제3회 평비문에서 노파가 간난을 중매하려 했다는 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노파가 가짜를 진짜로 알고 虛를 實로 알았다는 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난이 첫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생을 진심으로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간난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흔쾌히 허락했다.[29] 이는 그저 이생이 한번 보고자 하니 한번 만나나 볼까 하는 마음이었음을 뜻한다. 곧 '가짜'인 것이다. 그런데 노파는 이생에게 "어제 간난이의 마음은 온통 상공께 있"더라고 말한다.[30] 곧 '가짜'를 '진짜'로 안 것이다. 이후 간난은 이생을 볼 때마다 정을 표했고, 이생은 속으로는 꺼림칙해 하면서도 잘 해주는 척한다. 평비자는 제2회 평비문에서 "낙화는 뜻을 가지고 물을 따라 흘러가건만, 흐르는 물은 낙화에게 무정하기만 하다."는 말로 이생과 간난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음을 잘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생과 간난의 관계는 서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이들의 관계는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위한 '虛'인 것이다. 그런데 이생의 마음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노파는 매일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간난이 이생과 만날 수 있게 해 준다. 평비자는 이를 두고 "노파가 虛를 實로 알았다"고 하고 "노파가 간난을 중매하려"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용한 제1회 평비문에서는 간난에 대한 이생의 거짓된 마음[假]과 이생을 진심으로 마음에 둔 간난[眞]이, 간난의 첫 마음[假]과 이에 대한 노파의 오해[眞]가, 이생과 간난의 몇 차례 만남[虛]과 이에 대한 노파의 잘못된 인지[眞], 이 세 가지가 각각 교착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복선이 되어서 이후 이생과 간난의 관계, 이생과 순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평비자는 "虛實과 眞假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가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면서 메워진다."는[31] 말로 이를 드러내었다.

---

29) 제2회, 44면 "初相故意牢拒, 後乃快許曰, '吾非閨裏寡婦, 何害爲東墻之女乎?'云."

30) 제2회, 43-44면 "昨日, 鸞婢一心, 只在相公."

31) 이에 대해서는 제3회 평비문의 언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이생과 간난의 마음에 대해 노파가 정말로 '잘못' 판단했는지, 그래서 평비자의 말대로 노파가 이생과 간난을 중매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평비자의 판단이 옳은지는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작품에 그려진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작품 문면에다 노파는 자신의 속마음을 거의 내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생과 순매의 만남을 오랫동안 주선해 왔는지, 노파가 간난을 개입시킨 것이 이생과 순매의 만남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 혹 다른 뜻을 갖고 있던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이생과 간난의 관계가 흘러가는 양상을 노파가 과연 제대로 짚고 있었는지 같은 문제들이 작품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 노파의 의뭉스러움을 평비자는 제2회 평비문에서 "뜻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로 표현하였다.[32]

한편 제3회 평비문 언술의 앞 구절은 노파의 계책 하에 이생과 간난이 만남을 몇 차례 가진 것을 가리킨다. 애초부터 이생과 순매의 만남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간난을 끌어들였다는 점, 이생과 간난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간난이 이생에게 마음이 있다는 듯이 말하며 이생과 간난이 만나도록 부추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파가 간난을 중매한 것은 거짓이 된다. 뒷 구절은 간난이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확신하고는 자신의 조카딸을 꾀어냈다는 죄목을 씌우기 위해 노파를 질책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는 간난이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확신하고 이를 중매한 노파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진실이 된다. 또 앞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뒤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이 두 사건은 서로 조응을 이룬다. 그래서 평비자는 "앞의 거짓과 뒤의 진실이 멀리서 서로 이어진"다고 말한 것이다.

또 3회 평비문에서 평비자는 "노파의 중매는 진실로 헛된 것이요, 간난의 힐책 또한 헛된 것이"라 말했다. 노파의 중매는 어차피 거짓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헛된 것이고, 간난 역시 결국은 이생과 순매의 만남에 개입을 한 꼴이

32) 그렇다고 해서 평비자가 노파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유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장에서 상술하겠지만, 평비자는 제3회 평비문에서 이생과 간난의 관계에 대한 노파의 잘못된 판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언급은 노파가 자신의 속내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 의뭉스러움을 염두에 둔 말로 보는 것이 옳다.

되었기 때문에 작품 결말부에서 이생과 노파에게 한 힐책은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서술은 바로 이러한 점을 드러낸 것이다.

위 세 인용문에서 언급된 사건들은 이생과 노파의 의도와는 달리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다. 평비자는 이 사건들 안에서 '眞假', '虛實'이 교착되고 조응을 이룸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들이 이야기의 국면을 바꾸는 역할을 했음을 잘 짚어냈다고 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언행과 사건의 照應, 사건들 간의 照應: 사건을 일으키고 이야기 흐름을 변화시키는 요인들

작품의 평비문에는 평비자가 작품 속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眞假', '虛實'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이를 살펴보면, 그가 '眞假', '虛實'의 교착, 조응 양상이 아닌 다른 데에도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등장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사건들도 교착되고 조응을 이루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양상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사건들이 이리저리 얽혀가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변화하기도 함을 눈여겨보고 그 계기를 이루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짚어내려 하였다.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언행에 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의 언행으로 인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작품 속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구성되고, 흐름이 바뀌기도 한다.[33]

앞서 작품의 평비자가 보인 것처럼, 사건 속 등장인물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채 상대를 대한다든지, 사건의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인식한다든지 하는 것

33) 그래서 서사 이론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인가 여부를 두고 사건들을 구성적 사건(핵, 중핵), 보충적 사건(촉매, 위성) 두 층위로 나누기도 한다. 구성적 사건, 보충적 사건에 대해서는 H. 포터 애벗 지음(우찬제 · 이소연 · 박상익 · 공성수 옮김), 2010『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55-58면을 참조.

은 사건을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고,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반드시 작품 속에서 비중이 큰 중요한 사건만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며, 중요한 사건들 역시 반드시 등장인물들의 의미 있는 언행을 통해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장인물이 무심코 한 듯한 사소한 언행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더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평비자가 작품 속 사건들이 교착되고 조응을 이루는 양상들을 서술하면서 드러내 보인 것들은 다음 세 부류로 크게 묶을 수 있다.

① 더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 등장인물의 사소한 언행, 물건, 언약, 계책 등.
② 이야기의 흐름을 변화시킨 요인: 등장인물이 보인 언행의 불일치, 등장인물의 언행과 속마음의 불일치, 상황에 대한 등장인물의 잘못된 판단.
③ 사건의 상황에 따른 등장인물의 언행의 대응.

이 중 앞의 두 부류는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요인으로 주목한 것들이다. 그리고 평비자는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따라 나오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부류는 바로 평비자가 사건들의 조응 양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함께 짚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34]

(1) 더 중요한 사건 발생의 요인: 등장인물의 사소한 언행, 물건, 언약, 계책

아래 두 인용문은 모두 등장인물들의 사소한 언행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 순매가 한 번 모습을 드러내자 이생은 스스로 중매를 청하였고, 순매가 두 번째 나타날 때도 이생이 또 중매를 청하였으니 스스로 중매한 그 두 번의 만남이 멀리서 서로 조응이 되었다.[35] 〈제1회 평비문〉

34) 이 세 번째 부류는 본 논문의 흐름과 큰 관련이 없기에 따로 논의하지 않겠다.
35) 제1회 평비문, 9면 "梅之一見, 以生自媒. 梅之再見, 又以生自媒. 自媒兩遭, 遙遙相對."

위 인용문은 노파의 도움 없이 이생과 순매가 두 번 우연히 만나게 된 일을 가리킨다. 이생은 우연히 자신이 기거하는 집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길러 온 순매를 보고는 마음을 빼앗긴다. 그리고 종이 가져온 순매의 은팔찌를 손에 넣은 이생은 순매가 다시 물을 길러 왔을 때 이를 빌미로 자신의 마음을 표한다. 순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생은 이웃집 노파에게 주선을 부탁하는데, 집에 돌아와 난간에 기대있다 순매가 나타나자 다시 마음을 표한다. 이 두 장면은 앞뒤 조응을 이룬다.[36] 이생이 순매에게 반하지 않았다면, 순매가 나타나든 말든 이생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이생이 순매에게 반함으로써 이생은 두 번이나 스스로 순매에게 중매를 한 사건과 노파에게 주선을 부탁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매를 통해 이생은 순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순매는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고, 노파는 이생을 부르겠다고 했으며, 이생이 순매를 기다리니 순매가 왔고, 순매가 이생을 기다리니 이생이 또 왔다. 그러니 上下가 서로 조응이 되고 앞뒤가 서로 대응된다.[37] 〈제2회 평비문〉

여기서 언급된 사건은 이생과 순매가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으려 했던 날부터 그 해 섣달 그믐날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짧은 만남을 가리킨다. 처음 만나던 날에 순매는 남편을 내세워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며칠 후, 이생이 노파를 찾아가자 노파는 이생에게 순매를 데려올 테니 기다리라 했고, 과연 순매가 따라 왔다. 이때 순매는 이생에게 21일에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어그러진다. 이로부터 한참 지난 후, 난간에 있는 이생에게 노파가 눈짓을 하고 지나가자 이생은 곧장 노파를 따라가 노파 집에서 기다리던 순매를 만난다. 두 번의 만남 모두 순매가 약속을 했으며, 노파의 집에서 한 번은 이생이, 한 번은 순매가 기다렸다. 노파의 부름에 한 번은 이생이, 한 번은 순매가 따라갔다. 위 평비문은 순매, 노파의 약속, 순매와 이생의 행위 등이 서로 연관을 맺으며 두

36) 정우봉, 1996 앞의 논문, 131면.

37) 제2회 평비문, 25면 "以梅而有自踐之約, 以媼而有自生之招, 以生而有待梅, 梅且至矣, 以梅而有待生, 生且至矣. 上下相照, 前後相對."

번의 짧은 만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였음을 보인 것이다.

사소한 물건 역시 좀 더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작품 평비자는 순매의 은팔찌가 이생, 종, 노파 사이를 오감으로써 이생과 순매가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을 지적했다.[38] 그에 따르면, 이생은 은 노리개를 "처음에는 얻었다가 놓치고, 나중에는 주었다가 받았다". 그리고 "한 번 얻었다가 놓치고 두 번째 얻어 가지고 있다가 세 번째 전해준 뒤에야 비로소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처음에 종이 이생에게 순매에게서 저당 잡은 물건이라며 은 노리개를 가져왔다. 이생이 순매와 마주쳤을 때, 그는 이를 빌미로 순매에게 마음을 표했다. 그러다 종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 나중에 노파가 이생에게 저당 잡아달라며 다시 가져왔다. 그때 이생은 노파에게 순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금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뒤, 순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한 번 차는 것으로 한 번의 인연이 되었고, 종이 두 번의 중매를 선 셈이 되었으며, 노파가 세 번째 중매를 했다."는 말은 이 과정을 압축해 보인 것이다.

> 정월 대보름 날 좋은 절기에 만나자는 약속은[39] 순매가 한 것으로 꼭 지키겠다고 했고, 한식 날 청명한 시절에 보자는 기약은 노파에게서 나온 이야기이니 이는 명명백백한 것이다. 노파가 앓고 순매가 앓는 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노파가 갑

38) 제1회 평비문, 9-10면 "銀珮同是佩也, 同是銀也, 有自小奴自負之心, 又有自小奴還推之事, 又有老嫗袖來之喜, 又爲李生贊見之幣. 先有得失, 後有授受, 一佩之爲一緣, 一奴之爲再媒, 一嫗之爲三媒, 一生之爲一得一失, 二得三傳而後, 始爲會合場. 信物者, 豈偶然也哉? 物有有意之信物, 期有有信之佳期."

39) 원문은 '上元佳節之約'이다. 번역서에는 "정월 대보름과 좋은 계절에 만나자는 약속"이라 번역되어서 '上元'과 '佳節'이 별개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평비문에서 언급되는 것은 정월 대보름날과 한식날에 만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上元의(이라는) 佳節'이라고 해석해야 옳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정월 대보름 날 좋은 절기에 만나자는 약속"으로 수정하여 인용한다. 같은 이유로, 번역서에 '한식, 청명의 약속'이라 번역된 '冷節淸明之期' 역시 "한식 날 청명한 시절에 보자는 기약"으로 수정하여 인용한다. 평비문에서 '上元佳節'과 '冷節淸明'은 각각 이생의 "하늘에는 달이 둥글고, 세상은 한가한데 이렇게 좋은 밤을 헛되이 보내다니[天上月圓, 人間無事, 如此良宵, 不可虛度]"라는 말과 서술자의 "어느새 한식날이 다가오니, 이 절기는 이른 바 '청명한 시절 부슬부슬 비 내리니, 길 가는 행인은 넋이 끊어지는 듯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때였다[於焉之間, 節日已屆, 正所謂'淸明時節雨紛紛, 路上行人欲斷魂'之時也]."라는 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기 중간에 거절을 해 버렸으나 이생은 오히려 약속이 무산된 뒤에 방문을 받았으니 '세 가지 어려운 계책'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먼 나라와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계책이 되었다. 매화 하나의 인연이라고 한 것이 갑자기 뜻밖의 사람을 끌어냈으니 이생은 신실하여 참으로 믿을 만한 선비요, 노파는 이생을 시험했으니 참으로 꾀주머니로다.[40] 〈제2회 평비문〉

이 작품 전체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사건을 든다면, 단연 노파의 계책에 의해 이생과 순매 사이에 간난이 끼어든 사건이다. 노파가 이 계책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이생은 물론 노파마저도 간난이 끼어듦으로써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결국에는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평비자는 다음 인용문에서 이 계책이 나오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바로 이생이 신실한 선비였기 때문에 노파가 이 계책을 내었던 것이고, 이 계책은 이생과 순매의 만남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는 것이다.

섣달 그믐날, 이생이 노파를 통해 선물을 전하자 순매는 정월 대보름에 보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일이 어그러지자 노파가 한식날 만날 수 있게 주선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이는 순매, 노파가 직접 말한 것이니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한식날이 되어서는 노파가 앓아눕고, 다시 열흘 뒤에는 순매가 앓아눕는 바람에 일이 다시 어그러진다. 다시 달포가 지난 뒤, 이생이 노파를 찾아가자 노파는 화를 내면서 앞으로는 순매의 매자도 꺼내지 말라 한다. 이생이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노파를 통해 순매를 만나 보려는 이생의 희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생으로서는 순매와의 만남이 자꾸만 어긋나는 터에 노파마저 더 이상 중매 서는 것을 거부해 버렸으니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생이 순매를 만나는 것은 오로지 노파를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이생은 늦봄 3월 보름날에 다시 노파를 찾아가 순매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했다. 이때 노파의 당부대로 '梅' 자를 입 밖으로 전혀 꺼내지 않았다.[41] 평비문의 "이생은 신실하

40) 제2회 평비문, 25-26면 "上元佳節之約, 自梅而說, 且丁丁寧寧, 冷節淸明之期, 自嫗而說, 是明明白白. 嫗之病, 梅之病, 或先或後. 老嫗之忽焉中道而拒絶, 李生之猶且見訪於旣絶, 曰'三難之計', 反成遠交近攻之策. 曰'一梅之緣', 忽提意表言外之人. 生之信也, 固信士也, 嫗之試生, 固智囊也."

여 참으로 믿을 만한 선비"라는 말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생의 호소에는 순매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났기에 평비문에서 '매화 하나의 인연'이라 한 것이다. 노파 입장에서 '매'자도 꺼내지 말한 것은 결국 이생에 대한 시험이었고, 이생의 이 호소는 자신이 신실한 선비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42]

그래서 노파는 이생에게 간난을 끌어들이자는 계책을 제안했다. 평비문의 "인연이 뜻밖의 사람을 끌어냈"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계책은 처음에 이생이 노파에게 중매를 부탁했을 때 노파가 언급한 세 가지 어려움(물론 이것이 핑계임은 앞에서 지적했다)에도 등장했다.[43] 그런데 이번에 노파는 이를 일을 이루기 위한 기막힌 계책으로 제안했다. 처음에는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던 것이 이번에는 일을 좀 더 쉽게 이루기 위한 계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리고 만나려는 대상인 순매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제3자인 간난을 끌어들여 순매를 만나려 하는 점에서 "먼 나라와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계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이생에게는 그나마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해 주었으며, 작품 전체에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사건 흐름의 변화 요인: 언행의 불일치, 언행과 속마음의 불일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

평비자는 작품 속에서 사건의 흐름을 변화시킨 요인으로, 등장인물의 언행의 불일치, 언행과 속마음의 불일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 세 가지를 들었

41) 제2회, 40면 "老嫗之前後勤意, 銘心感骨, 而忽焉中途而磊磊落落, 此絶旣調之絃, 而沉未濟之舟也. 驥尾之蠅, 半途失附, 尺地之虫, 竟日無功, 豈不可惜乎? 惟望老嫗, 更發善心, 以濟濱死之命也."

42) 제2회, 41면 "老身之勤托, 在於不提道梅之一字, 而今者郎君, 果聽老身之戒, 不曾說去一梅字, 郎君亦可謂信士也. 然不提梅字, 而句句言言, 無非盡出梅也, 字字說說, 都是不忘梅也, 郎君可謂滑諧雄辯之士也. 郎君之誠意, 實是可矜. 今有一件可試之計, 未知相公其肯許否?"

43) 제1회, 15면 "老身何惜一言報答相公殷勤之情, 而此事有三難. 梅女之賦性愷潔, 身賤心貴, 不可奪志者, 一難也. 有母弟曰干鸞, 嗜酒貪色, 善小惡多, 梅女之進退儔張, 專在於此女, 梅可說, 鸞不可說, 此二難也. 有同舍婢福連, 淫佚善辯, 善伺人之動靜. 言未孚而事反覺, 則爲害於老身者, 多矣, 此三難矣. 然三難之中, 有一不難之事, 語曰, '六字孔方多焉多.' 則美酒焉鉗制鸞口, 物色焉啗利蓮心, 從中用事, 庶乎其十止一二可得也."

다. 사실 사건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평비자가 이 세 가지를 주목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파국을 향하게 된 중요한 원인들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언행이 불일치하고, 그들 간의 언행과 속마음이 불일치한 지점들을 찾는다면, 이생과 간난의 관계에서 이생과 간난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상대한 것, 순매가 스스로 혹은 노파를 통해 이생에게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는 이를 어기기를 반복했다는 것 두 부분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시 진심이 어떠했든 결국 상대의 진심을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이생과 간난의 관계에서 그들이 보인 언행들은 그들이 각자 갖고 있는 속마음과는 달랐다. 그리고 이생과 간난의 관계는 결국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평비자는 평비문에서 이들의 언행과 속마음을 '眞假'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언행과 이와는 다른 속마음이 결국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고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논의했다.

다음은 등장인물이 언행의 불일치를 보인 경우다.

> 이생은 스스로 끊어 놓고는, 끊고 난 뒤에도 오히려 연연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결단을 내려 끊고 난 후에도 오히려 마음 속에서 잊지 못하였다. 순매는 이미 약속을 어겨 놓고는, 약속을 어긴 뒤에도 오히려 스스로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했고, 시간이 지난 뒤에 오히려 그 말을 지켰다. 그러니 이생이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고, 순매가 반드시 온다고 한 것은 참으로 믿을 수 없다. 노파가 전하는 말이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생이 믿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44]
>
> 〈제3회 평비문〉

간난의 개입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순매가 약속을 하고 이생이 기다리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약속이 어그

44) 제3회 평비문, 50-51면 "生旣自絶, 自絶之後, 猶且眷戀, 痛斷之後, 猶且不忘于懷. 梅旣爽約, 爽約之後, 猶且自媒, 過時之後, 猶且踐言, 生之不信, 固其宜也, 梅之必來, 固未眞也, 嫗之所傳, 未可爲信, 則生之不信, 亦云宜矣."

러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비록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라고는 해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당사자는 상대의 진심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생은 마침내 화를 내며 더 이상 순매를 만나지 않겠노라 선언했다. 물론 이 말은 진심이 아니다. 며칠 후에 노파가 찾아와 다시 만남을 주선하자 이생이 마음 설레어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미 약속이 여러 번 어그러진 터라, 이생은 순매가 노파의 집을 찾아올 것이라는 노파의 말을 선뜻 믿지 못한다.[45] 그리고 이날 저녁 이생은 마침내 순매와 만나 하룻밤의 인연을 맺는다.

위 평비문은 이러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요약해서 서술한 것이다. 평비문의 언급처럼, 순매는 "이미 약속을 어겨 놓고는, 약속을 어긴 뒤에도" 다시 만날 약속을 스스로 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했"고, 결국 이생과 하룻밤 인연을 맺음으로써 "시간이 지난 뒤에 오히려 그 말을 지켰다". 그러나 평비자는 반복된 어긋남에 이생은 순매의 말을 점차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했다.[46] 그는 이생과 순매 사이에 간난이 끼어든 것과 함께 순매가 보인 언행의 불일치가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파국으로 향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등장인물의 순간적인 착각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뒤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사소한 행위가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

45) 제3회, 58-59면 "是果眞耶? 嫗其弄我, 試可之說也? 一期二期三呼四喚, 竟莫能遂其意, 則今之直走魏都, 是果眞耶? 夢耶? 嫗其明言, 以解此泄泄之心也."

46) 평비자 남화산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서문에서 "봄에는 오히려 함께 지내지 못하다가 여름이 되어서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으니, 순매가 바람에 나부껴 시든 매화 같았을 것임을 알 만하다[春猶不偕, 至于夏而能遂其願, 則此梅之飄殘, 可知]."고 하며 약속이 어그러짐이 반복됨에 따라 순매에 대한 이생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음을 넌지시 암시했다(南華散人 序文, 4면). 이에 대해서 작품 문면에 드러난 것이 없어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정황상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분명한 것은 순매에 대한 이생의 신뢰가 점차 줄었다는 점이다.

> 방 안에서 나는 애교 어린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그 순간 순매가 이미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고 보니 순매가 아니라 간난이었다. 이는 어떤 작자가 부린 요술이란 말이냐?[47] 〈제3회 평비문〉

이생은 뜻밖에 자신을 마음에 둔 간난으로 인해 매우 난감해 하던 차였다. 그리고 간밤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순매와의 만남이 어그러진 며칠 뒤 노파를 찾아갔다 방안에서 들리는 아리따운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틀림없이 순매가 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방안으로 들어 갔는데, 뜻밖에도 간난이 와 있었다. 애초부터 간난에게 마음이 없었던 이생은 간난과 술 몇 잔을 한 뒤, 거짓으로 둘러대고 돌아갔다. 이에 비로소 간난도 이생이 자신에게 마음이 없음을 알고는 매우 불쾌해 했다.[48] 이 사건은 간난이 이생의 진심을 비로소 알았다는 점, 이로 인해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간난의 의심과 감시는 결국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결국 이생의 순간적인 착각은 순매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보자.

> 노파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虛를 實로 알았으니, 虛實과 眞假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가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면서 메워진다.[49] 〈제1회 평비문〉

> 이생이 순매를 기다린 것을 보면, 순매가 왔을 때 이생은 그녀가 온 것을 알았다. 반면 순매가 이생을 찾아간 것을 보면, 순매는 이생이 이미 방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 노파가 이생을 맞아들이고 순매를 부른 것으로 보면, 노파는 이생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았다는 것과 순매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과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 온다고 하고 오는 것과 오지 않는다고 해놓고 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50] 〈제3회 평비문〉

---

47) 제3회 평비문, 50면 "聞房中之嬌音嫩聲, 方知梅之已在, 而及其相見, 非梅伊鸞, 是何作者之幻耶?"

48) 제3회, 53면 "過數日, 又訪至老嫗, 房中暗聞嬌聲嫩語. 生暗暗稱喜, '梅必先我到此.' 忙步進裡, 嬋娟佳人, 含笑相迎, 非梅女, 而乃是干鸞也. 鸞起迎曰, '役事多繁, 一未拜邀. 相公恕諒焉.' 生亦笑, 且殷勤以數盃相酬, 其醜態令人可發一笑. 生假意說去, 仍卽辭還. 鸞亦怏怏而退矣."

49) 제1회 평비문, 9면 "而老嫗則認假爲眞, 以虛爲實, 虛實眞假, 在在伏線, 遙遙補綴."

평비문을 살펴보면, 평비자는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파국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생과 순매가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노파의 잘못된 상황 판단 때문이라고 본 것 같다.

먼저 앞서도 인용했던 제1회 평비문 내용은 이생과 간난의 관계에 대한 노파의 인지 문제에 대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평비자는 이생과 간난의 관계에서 노파는 그들의 속마음을 잘못 파악했으며, 그로 인해 이생과 간난의 관계가 어긋남은 물론 이생과 순매의 관계도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음 제3회 평비문은 노파의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이생과 순매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간난이 확신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종결될 수밖에 없도록 한 사건에 대해 평비자가 내린 평가이다. 이해하기 쉽게 해당 장면을 제시한다.

> 노파가 말했다.
> "제가 지금 당장 불러오지요. 상공께서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노파가 이생을 방안에 들어가 있게 하더니 자물쇠를 채우고 문을 닫고는 휑하니 사라졌다. 조금 있다 순매가 밖에서 들어왔으나, 방문에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생이 이미 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생 또한 순매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짐작하고는 노파가 자물쇠를 풀어주기만을 기대하면서 숨죽여 기다렸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런 낌새가 없더니, 갑자기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했다.
> "순매가 왔을 텐데, 지금 어디 있지요?"
> "순매가 문으로 들어오는 건 알았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 노파도 함께 온 걸로 생각했는데,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뒤에 왔는지 알 수가 있나."
> 노파가 다시 문 밖으로 나가 여러 번 두루 찾아보았으나, 도대체 행방이 묘연하였다. 노파가 돌아와서는,
> "상공께서는 왜 방안에 있다고 먼저 알려주시지 않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치신단 말입니까?"
> 하니 이생 또한 혀를 차며 탄식하기를 그치지 않았다.[51] 〈제3회〉

---

50) 제3회 평비문, 51면 "以生而待梅, 梅至而生則知之, 以梅而訪生, 梅則不知生之已在房中, 以嫗而邀生呼梅, 不知生之已知而不見, 不知梅之已來, 而不知有知知不知知・來來不來來之意."

51) 제3회, 66-67면 "老嫗曰, '老身今當請邀矣. 相公暫此遲待也.' 於是老嫗, 使生入處室中, 鎖下金魚, 飄然出門而去. 俄而, 那梅自外而入, 見其房闥之緊鎖, 不知生之已在房內. 生亦料知

평비자는 이생, 순매, 노파 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직접 보고 인지한 사항이 무엇인지 언급했다. 그의 말대로, 이생은 방안에 있으면서 순매가 왔으리라 짐작하고는 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이때 이생이 순매가 왔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 순매가 이생을 찾아갔을 때 노파의 집 방문이 잠겨 있었으므로, 방안에 이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행위는 두 사람이 각각 잠긴 방문을 경계로 안팎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 만남의 기회를 결국 어그러지게 만든 사람은 노파인가? 평비자가 노파가 알지 못했다고 본 사항은, ① 이생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았음, ② 순매가 이미 와 있었음, ③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과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 ④ 온다고 하고 오는 것과 오지 않는다고 해놓고 오는 것의 의미 등 네 가지이다. ③은 이생의 행위, ④는 순매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①과 ③, ②와 ④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노파는 이미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간난이 의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갔다. 이생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에 순매가 왔음에도 인기척을 내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다. 즉 순매가 왔음을 알고서도 못 본 척했다(①). 잠시 후, 순매의 행방을 묻는 노파에게 이생은 두 가지 대답을 했다. 하나는 순매가 온 것은 알았지만 지금 행방은 알 수 없다. 이것은 이생 자신이 아는 대로 답한 것이니, "아는 것을 안다고 한" 것이다(③). 이어서 이생은 순매와 노파가 함께 온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지 누가 먼저 왔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순매가 왔을 때, "이생 또한 순매가 대문 안으로 들어 왔다고 짐작하고는"이라는 서술자의 말과 배치된다. 순매가 먼저 왔음을 알았음에도, 그래서 잠자코 방안에서 기다렸음에도 자신은 누가 먼저 왔는지 몰랐다고 모른 척한 것이다. 곧 "알고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③). 결국 노파가 이생에게 왜 순매에게 안에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것으

梅之入門, 而只冀老嫗之放鑰, 屛伏以竢. 久之, 漠無動靜, 忽見老嫗開戶入來, 曰, '梅且至矣. 今安在哉?' 生曰, '吾審其入門, 而更不知何往, 意謂老嫗同也. 不知其誰先誰後也.' 嫗復出門, 周訪數遍, 杳無踪響. 老嫗還曰, '相公何不先使通知有此, 空失好機耶?' 生亦咄歎不已."

로 보아 노파는 이생이 왜 방안에서 잠자코 기다리기만 했는지, 노파의 물음에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노파가 순매의 행방을 이생에게 묻고 찾으러 다닌 것을 보면, 순매가 자신의 집에 왔으리라고 짐작하면서도 정작 이미 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다(②). 이는 순매가 노파와 함께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보인 순매의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다는 점이다. 위 인용된 사건에서 순매가 노파의 부름에 응해서 온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 어떠했든 순매가 불쑥 찾아온 모양새가 된 것은 분명하다. 평소 순매는 대부분 자신이 언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서 오고는 했다. 물론 약속을 어기는 일이 훨씬 많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이생이 노파 집을 찾아갔을 때, 노파가 순매가 왔었노라고 말했던 점을 상기하면, 불쑥 찾아오기도 했던 적이 있기는 했다. 평소 같으면, 언제 오겠다 하고 노파와 함께 왔던, 곧 "온다고 하고 오"던(④) 순매가 노파가 부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마치 불쑥 찾아온 듯한 모양새로, "오지 않는다고 해놓고 온" 것처럼 나타났다(④).

이 사건은 순서상 간난이 이생과의 술자리에서 이생이 자신에게 전혀 마음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 시점, 그리고 이생과 순매가 마침내 하룻밤 인연을 맺은 시점 이후에 일어났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간난은 이생과 순매의 관계를 예전부터 의심하고 있던 차였다. 그런 만큼, 순매는 이생을 만나기 위해 주위의 의심을 따돌리는 데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를 노파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생이 앉아 있는 방문을 잠그고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노파는 좀 더 용의주도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순매가 굳이 "불쑥 찾아온 듯한 모양새"를 취한 속뜻을, 즉 바로 집 주위에 감시의 눈이 숨어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노파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노파는 순매가 집에 와 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정작 그가 왜 모습을 감추어 버렸는지를 알지 못했다. 위 장면에 바로 이어 서술자는 간난이 마침 이 집에 왔다가 중문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으며, 순매 또한 이러한 낌새

를 알아차리고 도망쳤노라고[52] 서술하였다.

노파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은 순매를 찾다 온 노파가 방문을 열고는 "이생에게 왜 방안에 있다고 알려주지 않아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느냐."라고 원망했다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노파의 이 말은 동정을 엿보고 있었던 간난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물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었다. 이에 간난이 몹시 화를 내며 노파와 이생을 힐책한 것은 물론,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여기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래서 "간난이 이생이 순매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는데도 끊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순매를 만날 방도가 없음을 안 이생은 "스스로 끊는 것을 아파하였지만 또한 능히 스스로 끊을 수 있었던" 것이다.[53] 결국 평비자는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재빨리 알아채지 못한 노파의 '무지'와 이로 인한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평비자는 평비문을 통해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인물들 간의 관계에 따른 그들의 언행, 속마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성 등에 주목하여 이들을 세심하게 분별해 내었다. 그리고 한 사건 내에서든, 사건들 간이든 이들이 서로 조응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러한 조응 양상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사소한 언행, 물건, 언약, 계책 등으로 인해 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 등장인물이 보인 언행의 불일치, 등장인물의 언행과 속마음의 불일치, 상황에 대한 등장인물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이야기의 흐름이 바뀐다는 점 등도 드러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소설 작품에서 사건들 간의 복선과 조응의 원리에 의해 이야기가 구성된다는 것, 등장인물의 사소한 언행이나 물건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다는 것, 작품 곳곳에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 등은 이미 상식이라 이 작품의 평비문에서 드러낸 이러한 것들이 그저 진부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평비자가 평비

52) 제3회, 67-68면 "原來, 晝語烏聽, 夜語鼠聞, 干鸞適到是家, 潛身中門, 細悉動靜. 梅女之走避, 亦且見機而去也."

53) 제1회 평비문, 8면 "不自絶而使之自絶者, 鸞也, 痛自絶而亦能自絶者, 生也."

작업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지적한 것은 이 소설 작품에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 있다는 것 자체를 보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즉 소설 구성이나 기법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평비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다음 장에서 살피기로 하자.

3. 평비 작업의 의도와 의미

평비자는 작품 서문, 제3회 평비문 전반부에서는 이생과 순매의 관계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문면에서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평비자가 이 작품을 궁극적으로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평비 작업을 하였는지도 이 두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곧 〈절화기담〉은 서문과 평비문이 결합되어 한 편의 평비 소설 형식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생과 순매의 사랑에 대한 평비자의 평가는 평비자가 평비 작업을 하게 된 동기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다.

제3회 평비문에서 남화산인은 뜬금없이 '因緣'에 대해 언급한다.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은 모두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에 의한 것으로,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54] 물론 이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기는[55] 하지만, 3

54) 제3회 평비문, 48-50면 "月老赤繩之說, 載在方册, 有曰, '三生有緣, 則雖萬里隔絶貴賤懸殊, 必與之相合.' 其說信耶? 否耶? 如蕭史之玉簫裴航之雲英相如之文君韓壽之賈女, 足爲風流場題目, 而其他天緣人緣之奇逢異遇, 不可殫記, 則夙約定緣, 亦有所由從而然耶? 然則桑中之期, 城隅之娭, 亦云乎天緣人緣乎? 否乎? 曰, '是亦緣也.' 是故, 有一時之緣, 有百年之緣, 聚散離合, 專在於有緣無緣. 是故, 有先遲而後速者, 有後期而先偕者, 此亦緣也. 是亦緣也, 故曰, '人之所願, 天必從之.' 定於天而後, 發於事, 發於事而後, 成於人. 定於天成於人者, 亦莫非天緣之所由定也, 豈人力之所可强哉?"

55) 이는 일차적으로 이생과 순매의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를 두고 이러쿵저러쿵했던 노파의 말이 그릇되었음을 이야기하고자 꺼낸 것이다(제3회 평비문, 50면 "嫗之言曰, '天緣之定不在此, 可知.' 又曰, '天緣之定在此, 可知.' 以一老嫗說, 是反反非非.").

회에 걸친 평비문에서 주로 다루던 문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내용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두 서문과 연관지어 살필 필요가 있다. 석천주인의 서문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석천주인은 사람 사이의 정과 일은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알 수 없으니 잊을 수도, 그만둘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으니 곰곰 생각할 수도, 그 일을 다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바로 '인연'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바로 '기미'라고 설명한다. 정이 생겨나는 것은 인연 때문이고,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미로 인한 것이다.[56] 물론 정과 일은 긴밀히 얽혀 있어 엄밀히 나누어 따지기 어렵지만, 어떤 일이 맨 처음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 즉 정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니 근원을 따진다면, 정을 촉발시키는 인연이 근원이 되어 어떤 기미가 생겨나고, 그 기미에 따라서 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뚜렷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생과 순매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들 모두가 이생과 순매 사이의 정해진 인연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과정의 시발점 또한 사람은 알기 힘든 어떤 기미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원은 바로 '인연'이며, 그러한 인연이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기미'가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이어 석천주인은 "기미가 있어 움직이고, 인연이 있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또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다. 인연과 기미를 작동시키는 기제는 바로 오로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어떤 대상에 '迷惑'되는 것에 주목한다. 이 미혹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명예를 망쳐 버리는 함정이 되기도 하고, 더 크게는 국가를 잃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빌미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석천주인은 이 미혹이 참으로 두려운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56) 石泉主人 序文, 4-5면 "情有不可知者, 事有不可測者. 不可知, 而有不可忘不可終者, 不可測, 而有不可究不可盡者. 是故, 情出乎緣, 事出乎機. 無緣, 情可[何]由生, 無機, 事何從起乎? 機有微而後事作, 緣有萌而後情動."

채 점점 빠져 들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57]

또한 석천주인은 온갖 미혹 중에서 '미색'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미색은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는데도 그 마음을 막지 못하고 망령된 것을 다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급박한 위험과 위태로운 재앙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도록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힘이 있다.[58]

이렇게 석천주인은 작품 속에 결구된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인연과 기미의 문제, 미혹의 문제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근원이 되며, 이것이 '기미'를 통해 비로소 일로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 '미혹'됨이 일의 기미가 실제 일로 발생하도록 推動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미혹됨 중에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바로 '미색'을 들었다.

그렇다면, 작품의 평비자인 남화산인은 석천주인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먼저 미혹과 미색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석천주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이 미혹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이 싹튼 데 기인한 것"으로[59] 보고 미혹한 사람들의 행적을 언급하면서 "한때의 욕망을 한껏 좇은" 결과라고 말한다.[60] 아울러 제3회 평비문에서 "하늘에서 정해

57) 石泉主人 序文, 4-5면 "其動於機, 作於緣者, 亦莫非人之所由生也. 是以禍福無門, 惟人所召. 然則好惡是非, 莫不不由於人, 利害苦樂, 亦莫不不由於人. 故黃金白璧, 適足爲喪命之祟, 富貴功名, 適足爲滅名之窠. 因牛飮之醉而失邦, 因狐媚之色而焚身. 喪其命·滅其名, 失于邦·焚乎身者, 不知其漸之所由, 而浸浸然自歸於無何之境也." 원문의 '好惡是非, 莫不不由於人, 利害苦樂, 亦莫不不由於人'에서 '莫不'과 '由於人' 사이에 '不'이 한 글자 더 들어갔음.

58) 石泉主人 序文, 5-6면 "自歸於無何之境, 而尤不能發禁操妄者, 則尤物也. 及其萬丈慾火, 際乎天地之間, 千層洪濤, 汎濫方寸之內, 勢如累卵, 而不知其危亡之接踵, 急如燃眉, 而不知其禍網之壓頭. 仁智勇畧, 逈出一世之上, 而亦莫能返轍復路, 終須入於向所謂浸浸之境而後已, 可不懼哉!"

59) 南華散人 序文, 1면 "因其嗜慾之所萌."

60) 南華散人 序文, 1-2면 "酒色財氣, 卽士君子之所難也. 或有盜飮讒間之吏部, 或有醉眠市上之學士, 或有偸香之韓壽, 或有媒葉之于祐. 有一費萬錢之相, 有一擲百金之卿, 有死不悔之荊卿, 有骨猶香之聶政. 此皆因其嗜慾之所萌, 而且是豪尙之所由成也. 自古以來, 英豪貴賤, 莫不由於四垣之中. 有殺其身不悔者, 有亡其家不顧者, 以逞一時之慾, 事反無聞焉, 與古之人不可同日語矣. 奇聞異觀, 終古何限, 而若所遇非其人, 則泯滅而無傳焉, 可勝歎哉!"

진 것이 나중에 일로 드러나고, 일로 드러난 것이 뒤에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는[61] 언급을 통해 볼 때, 그 역시 석천주인이 서문에서 밝혔던, '정'은 '인연'에서 생겨나고, 그것이 어떤 동기, 즉 '기미'를 통해 '일'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늘의 인연이 나중에 일로 드러난다는 말에는 인연과 일 사이에 어떤 동기가 작용한다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으며,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면 남화산인 역시 인연의 문제, 일을 발생시키는 기미의 문제에 유념하며 작품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화산인이 이 문제들에 유념하며 작품을 바라보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는 미혹과 미색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가는 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작 친구인 석천주인이 미색에 빠져든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연유를 알 수 없어한다. 그에 따르면, 석천주인의 사람됨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 아름답거나 말주변이 좋은 여자라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로 엮었다며 들고 온 글에는[62] "눈이 빠질 듯하고 애가 끊어질 듯하며 마음이 재가 되고 타는 듯한 구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남화산인은 친구인 석천주인이 도대체 순매라는 여자의 무엇에 반했기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몹시 의아해한다. 순매가 "먼지떨이를 든 기생"이나 "달밤에 낙수에서 거닐던 아름다운 선녀"가 되도록 했다면, 친구인 석천주인은 과연 "楊素나 曹子建의 풍류"가 있었을까 궁금해할 정도다.[63]

---

61) 제3회 평비문, 49-50면 "定於天而後, 發於事, 發於事而後, 成於人."

62) 이는 石泉主人의 다음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石泉主人 序文, 6-7면 "折花奇談, 卽余丁年所由閱歷者也, 敍其事記其實, 不過閑中翫覽之資, 而文不聯脈, 事多間空. 質諸吾友南華子, 南華子改敍篇次, 又從以潤色之, 雖吾親履之事, 而其腐心相思斷腸難忘之情, 句句活動, 字字耿結, 或有掩卷太息之處, 或有心痒眼酸之句."

63) 南華散人 序文, 3-4면 "吾友信□人也, 自齠齔之歲, 想像其所以爲人也, 則雖有泛湖之女·採桑之姝, 莫之動也, 而今因一閭巷賤婢, 如此委曲勤勤. 古語云, '色不迷人人自迷.' 其果人而自迷耶? 色而迷人耶? 其中間詩律詞賦, 頗有古体, 其序次來歷, 如在掌中, 亦可謂靜中一咲之資, 而滿篇都是眼穿腸斷心灰意涸之句, 則是女也, 果是月津楚岫之後身耶? 果是花狐狸粉髑髏之像, 而吾友之迷且甚耶? 使梅作執紼[拂]之妓, 則吾友果有楊素之風流乎? 使梅作

평비자인 남화산인은 석천주인이 가져온 글을 왜 윤색해주고, 여기에다 평비까지 달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남화산인의 이 언급을 통해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그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신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색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석천주인과 상대 여인의 관계(작품에서는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무엇을 빌미로 생겨나게 되었고,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남화산인이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의 기미, 일의 양상,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속내 등을 함께 읽어내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평비자는 이생과 순매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楊素와 曹子建의 풍류에 대한 언급에 이어 그는 작품 속 이생과 순매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내비치고 있다. 그는 이생과 순매의 사랑이 그러한 풍류를 전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찾는다. 먼저 이생은 순매와의 만남이 어긋나는 일이 반복되어 감에 따라 순매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식어 갔다. 이는 작품 문면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정황은 충분히 살필 수 있다. 임자년(1792) 봄부터 갑인년(1794) 여름에 걸쳐 이생과 순매는 총 9번 만나는데, 대개 다음 약속을 정하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 게다가 약속이 어그러져 얼굴조차 못 본 경우도 8번이나 된다.[64] 어그러짐이 반복되자 더 이상 순매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노라 화내는 모습,[65] 이생과 순매가 하룻밤 인연을 맺던 날에 순매가 노파의 집을찾아올 것이라는 노파의 말을 선뜻 믿지 않는 모습 등에서 그의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음을, 그 마음이 서서히 지쳐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화산인의 "순매가 바람에 나부껴 시든 매화 같았을 것임을 알 만하다."는[66] 언급은 이러한 이생의 마음을 읽어낸 것이다. 다음 이생

洛水步月之姬, 則吾友亦有子建之豐儀乎? 使梅作執紼[拂]之妓, 則吾友果有楊素之風流乎? 使梅作洛水步月之姬, 則吾友亦有子建之豐儀乎?"(□는 판독 불능 글자).

64) 김경미 · 조혜란 역주, 2003 앞의 책, 14-15면.

65) 제3회, 56면 "大丈夫寧以一女子眷眷爲哉! 今以後, 吾誓不言梅之一字, 而可歎可恨者, 老嫗之晝宵勤意, 竟歸虛也."

66) 南華散人 序文, 4면 "春猶不偕, 至于夏而能遂其願, 則此梅之飄殘, 可知."

과 순매의 만남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이 나 버렸다.[67] 작품 속에서 이생은 순매와 간신히 하룻밤 인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게 된 간난의 단속으로 인해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겨우 하룻밤 인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가 끝나고 말았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인연이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8] 석천주인 역시 하늘의 인연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음을 인정한다.[69]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평가에는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 먼저 평비자는 친구의 만남이 인연이 아니었던 이상, 인연이 아닌 줄을 미리 알아서 만나기 전에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애석해한다.[70] 인연이 아닌 줄을 미리 알아서 만나기 전에 관계를 끊는 것이 나았으리라는 말은 순매와의 만남이 계속 어그러진다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인연이 아님을 하늘이 알려 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토록 마음고생을 하고서야 관계를 끊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작품 속에서 일이 돌아가는 상황과 일의 기미에 관심이 있었던 평비자는 친구인 석천주인이 깊이 미혹되어 일의 기미를 살피지 못하고 좀 더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애석함을 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친구가 한 번 만난 뒤에라도 스스로 관계를 끊은 것을 두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한다.[71] 이는 그가 순매에게 미혹되기는 했지만, 미혹함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든지, 인생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역사상 미혹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예가 많음을 볼 때, 이생이 비록 순매에게 미혹되어 마음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인연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결단을 내려 스스로 여기에

67) 南華散人 序文, 4면 "井邊一面, 如隔弱水, 屋裡相見, 如夢初惺. 前而倏忽, 後而冷落."

68) 南華散人 序文, 4면 "事始偕於十逢九遇之後, 今以後始信天緣之所在. 惜乎! 莫如痛斷於未遇之前, 然猶幸自絶於一見之後也."

69) 石泉主人 序文, 7면 "一期二違, 二約三失, 如鬼弄揄, 如天指導."

70) 南華散人 序文, 4면 "莫如痛斷於未遇之前, 然猶幸自絶於一見之後也."

71) 원문은 주70) 참조.

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다고 한 것이다.

그의 다행스럽다는 평가 속에는 이생이 이러한 결단을 통해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비록 미혹되기는 했지만, 그 미혹됨이 윤리의 기강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 그 가운데는 오히려 나은 점도 있으니 내 친구가 간난이[순매]와 매섭게 관계를 끊어 황망한 가운데서도 윤리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이다. 순매는 또한 남편의 졸렬함을 상심하기는 했으나 해가 되는 데 이르지는 않았으니 요즘 사람들이 옛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72] 〈南華散人 序文〉

그는 이 작품이 〈鶯鶯傳〉, 〈金甁梅〉와 비슷한 면을 언급하면서[73] 그럼에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 두 작품의 주인공들보다 석천주인[이생]과 순매가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이 언급은 특히 〈앵앵전〉의 張君瑞와 崔鶯鶯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슷한 면은 주로 작품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것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과연 우위인지 여부는 이 이상 언급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다. 아무튼 그는 친구가 비록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마음에 두어 인연을 이루려 한 잘못은 있으나 결국 순매와의 관계를 매섭게 끊어서[74]

---

72) 南華散人 序文, 2-3면 "今此折花之說, 卽吾友李某之實錄. 詳考一篇旨意, 則大畧與元稹之遇鶯娘, 恰相彷彿, 其曰一期二約, 三會四遇, 竟莫能遂. 其曰鸞也之自媒, 與紅娘之解饞, 遙遙相照, 又與金甁梅之西門遇潘娘, 太相類似. 其曰三件難事, 難且又難! 曰靑銅銀佩之說, 與王婆之口辯, 無異, 奇哉! 千載之下, 其下說論事, 若是近之! 其中反有勝焉者, 吾友之痛絶鸞[梅]也, 百忙中能扶彝倫之綱紀, 梅且傷夫之拙, 而未之爲害, 無乃今之人遠過於古之人耶?"

73) 南華散人 序文, 2면 "今此折花之說, 卽吾友李某之實錄. 詳考一篇旨意, 則大畧與元稹之遇鶯娘, 恰相彷彿, 其曰一期二約, 三會四遇, 竟莫能遂. 其曰鸞也之自媒, 與紅娘之解饞, 遙遙相照, 又與金甁梅之西門遇潘娘, 太相類似. 其曰三件難事, 難且又難! 曰靑銅銀佩之說, 與王婆之口辯, 無異, 奇哉! 千載之下, 其下說論事, 若是近之!"

74) 이 부분 원문은 원래 '吾友之痛絶鸞也'이다. 이대로 해석하면 '내 친구는 간난과의 관계를 통렬히 끊음으로써'가 된다. 그런데 장효현 외, 앞의 책 교감본에는 '鸞'을 '梅'의 오자로 보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작품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부분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梅'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생과 순매가 좀 더 용이하게 만나도록 하려는 노파의 계책에 따라 이생은 간난을 만나지만, 이생은 진심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생과 순매의 관계, 노파의 계략을 확신하게 된 간난이 이생에게 따지고 들자 이 모든 것

윤리의 기강을 바로잡았으며, 순매 역시 남편이 있는 여자로서 남편 몰래 남자를 만나기는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인 시선에서 평가한 것만은 분명하다.[75]

이상에서 보듯, 이생과 순매의 관계에 대한 평비자의 평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순간적인 끌림에 강하게 이끌려 사랑에 빠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정작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의미 있는 일은 전혀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진척되지 않는 관계에 마음만 애달파 하다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 애당초 두 사람은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일의 기미를 살피지 못해 좀 더 빨리 인연을 끊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그렇지만, 완전히 미혹되어 극단에 이르기 전에 결단을 내린 점, 그럼으로써 윤리의 기강을 해치지는 않은 점은 다행스럽다. 그의 이러한 평가에 이생과 순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이 내재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리고 현대 연구자들이 이생과 순매의 사랑이 갖는 의미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평비자는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도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평비자와 석천주인 모두 작품에 그려진 이생과 순매의 관계 양상을 보면서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순간적인 미혹됨이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마음을 상하는 것이 매우 심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고 경계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20살 때 이 일을 겪은 당사자인 석천주인의 "옛날의 잘못을 돌이켜 바른 곳으로 돌아가겠"노라는 언급은[76] 그가 피부로 느꼈던 절실함에서 나온 '실질적

이 노파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며 모든 책임을 노파에게 돌려 버리고, 자신이 간난을 만난 것은 간난의 입을 막고자 위함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애초부터 통렬하게 끊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관계였다. 아울러 이 부분은 남화산인이 이생과 순매의 관계에 대해 총괄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인 만큼, 이생과 순매 사이의 관계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梅*'로 교감을 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75) 그렇다고 해서 이를 장군서와 최앵앵의 행위에 비해 옳은 일이라고 '옹호'한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위 인용문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비록 옳은 일은 아니지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평비자가 이생의 행적을 두고 "애석하면서도 다행스럽다"라고 평가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 언사라 할 수 있다.

결국 석천주인, 남화산인 모두 이 작품에 나타난 이생과 순매의 사랑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훈적 요소를 중심으로 소설을 읽었으며", 이를 통해 "인물을 본받거나 경계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道를 익"혔던[77] 것이다. "삶의 道를 알려주며 따르게 하는 고전소설의 효용"이[78] 이 작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석천주인으로서는 자신의 경험을 한 편의 이야기로 엮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 셈이고, 남화산인으로서는 친구가 가져온 이야기를 윤색하고 평비를 달면서 친구의 경험을 推체험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이치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가진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들과 평비자인 남화산인이 '眞假', '虛實'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평비문을 통해 드러낸 것은 어떻게 연관이 될까?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남화산인이 이 작품에 대해 평비 작업을 하게 된 것은 대략 다음 과정에 따라 동기화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혹과 미색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친구인 석천주인이 미색에 그토록 빠져든 까닭이 몹시 궁금했다. 그는 친구가 미색에 미혹되었던 연유를 자세히 알고 싶었다.

둘째, 이러한 연유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계가 과연 인연이었는지, 그리고 관계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기미가 되어 일이 벌어졌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단서들은 없었는지 하는 사항들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분석하되, 이생과 순매의 관계, 그들의 언행과 여기에 담긴 속마음, 그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속내, 관계를 흘러가게 하는 상황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셋째, 이러한 기미를 짚어내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의 언행과 그 속마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언행에 담긴 속마음이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 관계를 유지하는

---

76) 石泉主人 序文, 7면 "今以後, 方知色之所媚, 人之易惑也. 且序文之勗予心者, 多矣, 自今以往, 改圖革舊, 反非入是者, 莫非吾友賜也."

77) 황혜진, 2004「독자 비평 자료를 통해 본 고전소설의 효용에 대한 연구」『문학교육학』 15, 415-416면의 주4) 및 417면.

78) 위의 논문, 413면.

데 유의미한 것이었는지, 또한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을 맺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따질 필요가 있었다.

넷째, 이러한 진실성과 유의미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행과 속마음을 '眞假', '虛實'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의 연관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결국 남화산인이 이 작품을 굳이 '眞假', '虛實'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이를 통해 독자들이 이 작품을 좀 더 주의 깊게 읽고, 깊이 음미할 수 있기를 기대했고,[79] 동시에 이 작업을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이치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남화산인이 이 작품을 '眞假', '虛實'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그가 평비문에서 끊임없이 '복선'이 된다느니, '조응'을 이룬다느니 하는 말을 했던 것은 소설의 구성이나 기법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이 생기게 되는 근원인 '인연', '일'을 발생시키는 '기미', 이로 인해 생겨난 '정'과 '일'의 양상과 흐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평비자는 처음 이생과 순매 사이를 이어주는 데 순매의 은팔찌가 매개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이생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기미로 작용한 것은 바로 간난을 끌어들이자는 노파의 계책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이생과 순매의 어긋남이 반복되었던 점 역시 이들의 인연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들이었다. 그는 이 점 역시 잘 짚어내었다. 또 이생은 순매에게 마음이 깊이 기울어져 어떻게든 그와 인연을 이루어보려 했다. 그러나 정작 순매는 비록 여러 상황이 그러했기는 했지만 그의 진심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약속을 저버리기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이생은 끝없이 마음을 졸이다 서서히 지쳐갔다. 간난은 이생을 마음에 두었으나 이생이 거짓으로 그에게 마음 있는 척 행동했던 것, 순매인 줄 알고 노파의 집 방문을 열었다가 뜻밖에 간난과 마주하게 된 이생이 보인

79) 제3회 평비문, 51면 "意趣無窮, 情緖備悉, 覽之者, 徒知事之巧・生之豪・梅之美, 而不知文之巧・意之詳・言之細・情之篤也."

모습 등을 통해 결국 진심을 알아챈 간난은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생과 순매의 만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간난을 끌어들인 노파의 속은 알 수가 없었으며, 정작 이 일을 행한 노파의 부주의로 인해 두 사람은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이렇게 평비자는 이생과 순매가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데 이르기까지 '기미'로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을 잘 짚어냈다. 그리고 이생과 순매의 관계가 끊어지기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과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마음, 곧 '정'이 어떻게 얽힌 채 흘러갔는지 하는 점들도 잘 짚어냈다.

4. 평비 소설로서 〈절화기담〉의 위상

본 논문에서는 〈절화기담〉 평비문을 대상으로 하여 평비자가 이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읽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평비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평비자는 평비문을 통해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인물들 간의 관계에 따른 그들의 언행, 속마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성 등에 주목하여 이들을 세심하게 분별해내었다. 그리고 한 사건 내에서든, 사건들 간이든 이들이 서로 조응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러한 조응 양상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게 된 요인들도 짚어냈다.

평비자가 평비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등장인물의 사랑에 대한 평비자의 시각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으며, 이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모습도 보였다. 평비자는 평비 작업 과정에서 '정'이 생기게 되는 근원인 '인연', '일'을 발생시키는 '幾微', 이로 인해 생겨난 '정'과 '일'의 양상과 흐름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언행과 속마음을 '眞假', '虛實'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의 연관관계를 탐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평비 소설로서 〈절화기담〉은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평비 소설로서 다른 작품들과 변별되는 지점이 어디일까? 이 문제는 여러 평비 소설 작

품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김성탄의 〈서상기〉, 〈광한루기〉 등을 읽으며 필자가 받았던 인상을 토대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연구자들에게 평비 소설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작품 내 서문, 독법, 평비문, 협비 등에서 소설 구성과 기법에 대한 언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론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前 근대 시기에 현대 소설 이론에서 볼 수 있는 복선과 조응, 구성, 서술 기법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설 평비문에서는 당연히 소설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 나간다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절화기담〉은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 작품이다. 왜냐하면, 이 작품 평비문에서는 이러한 소설 이론이나 소설 기법 측면의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 연구자들이 보기에 평비문에서 다룬 이야기들이 사실상 이 측면으로 수렴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평비자는 이러한 측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평비자는 철저하게 등장인물과 상황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 그 중에서도 그것의 진실성을 밝혀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소설의 구성이나 기법 측면에서 접근하고, 등장인물의 언행 자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비문은 자연적으로 평비문 문체와 평비자 시각이 대단히 분석적이면서 비평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김성탄이 평비한 소설 작품들이 단적으로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 반면, 등장인물과 상황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평비문은 이러한 성격보다는 평비자 자신은 작품을 이렇게 읽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讀書記'로서의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띤다. 또한 전자가 독자들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작품을 읽어 가도록 강하게 이끈다는 인상을 준다면, 후자는 반대로 나 스스로는 작품을 이렇게 읽었노라 하는 점 자체를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인상을 준다. 이 작품 평비문은 후자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결국 평비문이 일차적으로 평비자가 작품을 읽은 데 대한 독서 기록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절화기담〉에 나타난 평비 양상은 평비자가 작품을 충실하고 세

심하게 읽고 이에 대한 분석을 기록하고, 동시에 작품 내용에 비추어 스스로를 성찰한 '讀書記'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광한루기〉와도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조선후기 평비 소설이 몇 작품 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록 그 수는 적지만 각기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김성탄이 평비한 〈서상기〉, 〈광한루기〉, 〈절화기담〉의 서문, 독법, 평비문, 협비 등을 세심하게 비교를 했을 때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 작품 사이의 변별점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평비 소설에서 평비문이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들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절화기담〉은 김성탄 소설 비평의 영향과는 별개의 어떤 다른 전통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갖게 하는데, 이 문제는 18세기 후반 이후에 나온 詩選集, 文選集인 『乾川稿』, 『古文百選』, 『鐘北小選』, 『雪橋藝學錄』, 『古詩批評』 등에 나타난 평비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문제들을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折花奇談〉, 評批, 評批小說, 評批文, '眞假', '虛實', 交錯, 照應, 朝鮮後期

투고일(2015. 2. 10), 심사시작일(2015. 2. 23), 심사완료일(2015. 3. 11)

〈Abstract〉

<*Jeolhwagidam*(折花奇談)> Examined through a Critical Essay
- Focused on Critical Aspects and Intentions -

Yae-joon Jang *

<*Jeolhwagidam*(折花奇談)> is a form of critical novel with a preface and a critical essay combined, a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critic read this work from what point of view while focusing on the critical essays of <*Jeolhwagidam*(折花奇談)> and what intentions he had carrying out critical work. He paid attention to events taking place in this literary work, characters' words, behaviors and minds depending on their relations and truth inside them, and carefully discriminated them. He also revealed that one event corresponded to another event, and even pointed out factors changing the flow of a story during the process of exposing such a correspondence aspect.

The reason why the critic started the critical work is definitely related to his view on the characters' love, and he reflected on himself while carrying out the critical work. He mostly focused on the aspects and flow of 'affection' and 'work', 'human relations' which are the source of affection and 'Gimi(幾微)' which generates work during the critical work. To expose them effectively, he analyzed the characters' words, behaviors and minds from the standpoint of Zen-jia(眞假) and Xu-sil(虛實) and investigated their correlation.

Such critical aspects of <*Jeolhwagidam*(折花奇談)> show that the critic read this literary work sincerely and carefully, recorded his analytic views and reflected on himself while considering the contents as a book report. It is meaningful that this critical work is one of the various aspects seen in the critical novels written in the late Joseon(朝鮮) Dynasty.

Key words : <*Jeolhwagidam*(折花奇談)>, Comment, Critical novel[評批小說], Critical essay[評批文], Zhen-jia(眞假), 'Xu-shil(虛實), Mixture[交錯], Correspondence[照應], The late Joseon(朝鮮) Dynasty

* A Research Professor of BK21 Plus Korean Culture Literature Project Team in Korea University.